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었다.

협의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정치국은 먼저 5월 28일 현재 전염병전과상황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8만 9,50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10만 6,390여명이 완쾌되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28일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루직이 완쾌되고 5.396%에 해당하는 18만 6,110여명이 치료를 받고있다. 94.602%에 해당하는 326만 2,700여명 지역별 전염병전과 상황과 병 경과



정치국은 전염병전과상황이 통제, 개선되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전황을 계속 안정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정치국은 전염병전과상황이 안정되는 형세에 맞게 방역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조종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기 위한 실무지도소조들의 활동정형이 통보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준비사업과 관련한 중요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또한 기타 정치국은 초기발병지와 전과경로에 대한 연구토의사업들 한 국가적인 연구해결결과를 청취하고 이 진행되었다. 해당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본사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이 되는 올해를 주체위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5차 전체대회가 5월 28일과 29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배진구, 조일연, 송근학, 강추련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들, 총련중앙고문들과 재일본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중앙감사위원들,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지》를 남승우부부의장이 낭독하였다.

서한낭독이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사수, 인민보위의 방역대전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방하신 속에서도 친히 강령적서한을 보내주시어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과 총련부흥의 휘황한 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총에 복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우렁찬 박수를 터쳐 울리었다.

대회에서는 자격심사보고가 있던 다음 대회의 안으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제출하는 총련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에 대하여》, 《재정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의 역원선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중앙감사위원들이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보고를 하였다.

첫째의안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총회기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본부의 조직지도력과 지부의 활동력을 크게 높이며 기층조직들을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새시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을 묶어세운 사업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총련결성 이래 일본반동들의 총련탄압소동과 민족교육차별책동, 재일동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장

기화되는 대류행전염병의 재앙으로 총련의 모든 활동이 억제되는 미증유의 시련을 일심단결과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과감히 물리치면서 총련 분회를 재건활성화하는 사업과 민족교육사업, 민족문화체육활동과 조국통일사업 등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그들은 긍지높이 토론했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과 교육위원회, 사회주의예측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대하여 그들은 긍지높이 토론했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

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에서는 일본의 정당, 사회단체, 련대성 및 친선단체 인사들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대표들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사업보고를 하였다.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



대회에서는 돌림수님께서만 계시면 주체위업안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조건 관철하여 총련의 조직사상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을 전면적발전의 단계로 확고히 올려세워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총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기간에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하시어 전대미문의 국난을 과감히 뚫고 조국땅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출달음치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빛나는 총련》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돌림수님께서만 계시면 주체위업안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조건 관철하여 총련의 조직사상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을 전면적발전의 단계로 확고히 올려세워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총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기간에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하시어 전대미문의 국난을 과감히 뚫고 조국땅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출달음치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빛나는 총련》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돌림수님께서만 계시면 주체위업안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조건 관철하여 총련의 조직사상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을 전면적발전의 단계로 확고히 올려세워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총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기간에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하시어 전대미문의 국난을 과감히 뚫고 조국땅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출달음치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빛나는 총련》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돌림수님께서만 계시면 주체위업안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조건 관철하여 총련의 조직사상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을 전면적발전의 단계로 확고히 올려세워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총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기간에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하시어 전대미문의 국난을 과감히 뚫고 조국땅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출달음치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빛나는 총련》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돌림수님께서만 계시면 주체위업안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조건 관철하여 총련의 조직사상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을 전면적발전의 단계로 확고히 올려세워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총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기간에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하시어 전대미문의 국난을 과감히 뚫고 조국땅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출달음치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빛나는 총련》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돌림수님께서만 계시면 주체위업안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조건 관철하여 총련의 조직사상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을 전면적발전의 단계로 확고히 올려세워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총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기간에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하시어 전대미문의 국난을 과감히 뚫고 조국땅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출달음치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빛나는 총련》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본사기자



# 김정은

##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 주체 111(2022)년 5월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민족최대의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해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가 열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위력이 세계 만방에 높이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열리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를 맞으며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체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정히 담아가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끊임없는 상승일로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총련의 최고결의기관인 전체대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뿌리를 둔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총련결성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려정에는 계승과 혁신, 전진과 도약의 분수령으로 된 전체대회들이 긍지높이 आरो새겨져왔습니다.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에서 전체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재일동포들의 행복한 앞날을 따듯이 축복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해외 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역의 모진 풍상고초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전체대회들을 계기로 애국애족의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 력사가 협로역경의 가시덤불을 헤쳐야 하는 고행의 련속이었지만 제24차 전체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4년간은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과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확산으로 우리 동포들 모두가 너무도 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형언할수 없는 격난이 증첩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 조국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혁혁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려왔습니다.

조국래왕이 중단된 열악한 상황이 지속된 속에서도 자기의 본래를 뚜렷이 과시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뜨거운 애국지성을 고여온 재일동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서 조국인민들은 커다란 힘을 얻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귀중함을 더욱 강렬하게 절감하였습니다.

나는 전대미문의 년대들에 조국의 통일발전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혼연히 다 바친 한덕수동지, 리진규동지, 서민술동지, 리계백동지를 비롯한 로세대 총련일군들과 유명무명의 1세대동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이역의 모든 곤난을 강인하게 인내하며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길에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보시처럼 수놓아가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평화애호적인 인민들, 각국의 외교사절들에게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은 새 전성기개척을 위한 지난 10여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크게 약진하였으

며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해 나아가는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는 강성총련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진군을 가속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회합으로 될것입니다.

현시기 총련의 기본임무는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는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과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동포들의 진함없는 힘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영원한 승리적담보입니다.

이것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가 림증한 절대불변의 진리이며 제24기 총련사업의 자랑스러운 총화이기도 합니다.

총련에서는 애국애족으로 불타는 광범한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을 유일무이한 원동력으로 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과업은 셋째로, 총련의 모든 활동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시키고 일관시켜나가는것입니다.

동포제일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일조선인운동실천에 구현한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총련은 마땅히 동포제일주의조직이 되어야 하며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들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의 옹호자, 대변자로서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옹호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언제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피땀으로 총련조직을 일떠세우고 동포자녀들의 배움터를 목숨으로 지켜낸 1세들의 념원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교육권, 기업권, 생활권옹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각급 총련조직들과 단체들에서는 권리옹호사업을 애국애족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철저히 대응해나가야 하며 동포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대중운동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의 조국래왕을 가로막은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며 동포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특례조치들을 속속 실행해나갈것입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뜨거운 혈연의 정을 안고 재일동포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복지활동에도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

이역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못해하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으로 귀중한 우리 재일동포들의 복리를 위해 나라의 억만재부를 다 기울여 주고싶은것이 나의 진정입니다.

총련은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동포들의 요구와 리익,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동포들의 생활과 밀착된 봉사복지활동을 근기있게 벌려 그 과정을 통하여 총련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중적지반을 크게 넓혀나가야 합니다.

동포생활상담소들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결혼,

취직, 고령자, 장애자문제를 비롯하여 동포들의 생활상요구를 성심성의를 다해 풀어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매일수록 동포들속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가 동포사회에 더과 정으로 서로 돕고 위해주는 상부상조의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지진과 해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땅에서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것보다 더 긴절하고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총련에서는 각급 기관들과 학교들, 동포가족들의 내건건널성도 전반적으로 료해대책하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동포들에 대해서는 더 가슴을 조이며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한명의 동포도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선제적인 대책과 성심어린 분투에 의하여 세계적인 대류행병으로 인한 동포사회의 피해상황은 비록 크지 않지만 절대로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동포들의 생명안전보장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동포들모두가 무병무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과업은 둘째로,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입니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재일동포사회의 존립과 장래가 달려있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철두철미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똑바로 알게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육일군대렬을 총련애국위원의 미래를 책임진 직업적혁명가들의 대오로 정제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에서는 모든 교원들을 새세기 교육혁명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교육자적자질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심을 두고 지도방조를 알심있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총련교육일군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운명을 책임진 남다른 긍지와 사명감을 자각하고 민족교육의 찬란한 개화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합니다.

민족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여야 합니다.

각급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육과 민족성교육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 다양한 과외교양방법들도 적극 창조하고 서로 공유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 각급 학교 학생수를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 조직이 달라붙어 학생인입사업과 조선대학교 진학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우리 유치원원아수를 더 늘이고 준정규교육망의 운영과 확대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인교육회와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서는 민족적자존심을 걸고 동포자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아버지회, 어머니회뿐 아니라 총련의 모든 조직들이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학교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운동을 일관하게 벌려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선대학교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대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세워주시고 장중보육처럼 귀중히 여기시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해외교포대학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총련애국위원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핵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 재일조선인운동의 백년대계를 역척같이 담보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조선대학교를 마음속에 품어안고 총련의 계승자육성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과업은 셋째로,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는것입니다.

민족성은 조국인민들도 강해야 하지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일수록 더 강해야 합니다.

민족을 특징짓는 첫째 징표는 소여 민족의 혈통이며 둘째 징표는 언어입니다.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는데 애국의 참모습이 있으며 우리 말을 하는 시간은 곧 애국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총련에서는 동포들사이에 혈연적유대를 이어주는 수단인 우리 말과 글을 줄겨쓰도록 하는것이 민족성고수의 출발점, 애국의 첫걸음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총련조직과 단체, 기관과 학교, 가정을 비롯하여 동포사회 그 어디에서나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말이 량랑히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 풍습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총련의 출판선전기관들에서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유산, 단일한 혈통과 고상한 미풍양속을 소개선전하는데 시간과 지면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총련의 새세대들이 단결력과 개척정신이 강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조선민족의 역센 기질과 웃어른을 존경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며 부모처자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미풍양속을 순결하게 이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포가정들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명절들에 민족음식을 해먹는것을 적극 장려하고 우리 학교들에서도 학생들에게 조선옷짓기와 김치담그기를 비롯한 민족요리를 만드는 방법도 잘 가르쳐주며 민족음악무용소조운영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이 민족옷을 사랑하고 즐겨입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라향에서 국기가 없이도 조선사람임을 알게 하는 우리 민족의 상징입니다.

재일조선녀성들과 우리 학교 녀학생들속에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이 동포사회의 훌륭한 풍조, 하나의 관례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민족성고수를 전 조직적, 전 동포적인 운동으로 더욱 기운차게 벌려 재일동포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이역땅에서 산다 해도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 조선의 얼굴, 민족의 얼굴로 각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과업은 넷째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부응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예 특색있게 이바지하는것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우리 공화국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지위를 비상한 경지에 올려세운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입니다.

(3면으로 계속)



#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2면에서 계속)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재일동포들은 이런 시대에 사는 공민적근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통일과 나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 나서는 제일 중차대한 애국사업입니다.

총련의 조국통일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시고 견지하여 오신 하나의 조선로선을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민단》을 비롯한 조직밖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여 통일애국력량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들의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총련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조직들과의 민족적유대와 련계를 긴밀히 하여 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해외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담당수행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분렬주의책동을 규탄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섰습니다.

날과 달이 다르게 시간을 다루며 몰라보게 변모되는것이 사회주의조국의 자랑찬 현실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살아야 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절대적인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국의 첫 기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공화국을 떠받드는 초석이 되고 대들보가 되어준 우리 인민의 불굴의 군상속에는 재일동포들의 모습도 력력히 새겨져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강성과 번영에 이바지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주체혁명위업, 총련애국위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총련대외사업의 기본임무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 인민들속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의 평온과 안정을 보장하는것입니다.

총련은 일본의 각계인사들과의 사업을 신축성있게 벌리고 민주세력들,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계속 늘여나가야 합니다.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에서는 지역대외사업에도 웅당한 힘을 넣어 지방자치체들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총련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일본주재 외국대표부들과의 사업을 용의 주도하게 진행하는것과 함께 국제무대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활동에 대한 지지찬동의 목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중대한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주체의 사상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진전동력을 배가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로 가는 지름길은 오직

하나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달하는데 있습니다.

위대성교양, 애국주의교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양, 재일조선인민운동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교양, 신념교양은 총련사상사업의 기본내용입니다.

총련에서는 새세대들을 비롯한 동포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과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가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의 내용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알심있게 진행해나가며 위대성교양을 하면서도 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을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양을 하면서도 재일조선인민운동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교양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애국주의교양을 우리 국가제일주의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기관들에서 민족최대의 명절들과 공화국창건기념일, 총련결성기념일 등을 맞으며 실정에 맞게 국가제일주의를 전통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학교들에서도 우리 국가의 상징물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입학식과 졸업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자기 손으로 국기도 펴워보게 하여 그들의 소중한 꿈이 언제나 사회주의조국과 잇닿아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진행되는 총련의 선전문화사업에서 공식화된 방법이나 만능의 처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총련에서는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근절하며 동포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교양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출판선전물들의 침철력과 견인력을 부단히 높여 나가야 합니다.

조선진보사와 조선통신사에서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더 많은 동포들에게 조국소식, 동포소식을 신속히 전해주며 우리의 문화가 중단없이 파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과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선전문화담당기관들과 예술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지방가무단들의 공연과 각종 문예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포사회가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들로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총련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들로 다진다는것은 그 어떤 외부적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동포들의 삶과 행복을 굳건히 지켜내는 철용성으로 만든다는것을 말합니다.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참모부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지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총련중앙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제일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만 드림없이 조직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며 조직내부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어 대외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핵심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 현본부들의 조직장악력과 실천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현본부는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지역적지도단위이며 총련중앙의 지역별 보좌단위입니다.

현본부들에서는 아래단위들에 대한 사업체계를 더 정연하게 세우고 지도방조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중앙의 결정과 지시가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부들의 지역적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여 중소본부들이 일떠서고 용을 쓰는 새 모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지부중시, 분회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기층조직들을 애국애족의 광채를 눈부시게 뿌리는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부를 각계층 동포들속에서 든든히 발을 붙인 지부, 동포핵심들이 주동이 되어 움직이는 지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부들에서는 비전입일군들을 적극 인입하여 활동력을 더욱 높이며 지부경쟁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 모든 지부들이 전체대회결정판철의 실제적인 집행단위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말단기층조직인 분회가 힘을 내야 전 조직이 강화되고 동포사회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되어나갈수 있습니다.

분회건설의 가장 리상적인 목표는 위대한 진리로 굳게 결합되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따뜻한 동포동네로 만드는것입니다.

총련에서는 분회대표자대회를 전체대회 못지않게 중시하며 분회일군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모든 분회를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분회들에서는 분회강화를 위한 4대과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애국애족창조운동을 일관성있게 벌려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끊임없이 고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련의 계층별 군중단체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 기업과 생존의 혈치 않은 부담을 걸머지고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의 귀중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동포상공인들과 새세대 청년들, 동포녀성들의 뜨거운 진정과 애국심을 떠나서 총련의 번영과 흥하는 동포사회를 생각할수 없습니다.

총련의 군중단체들에서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항상 자각하고 모든 회원, 동맹원들이 전세대들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는것과 함께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대중운동을 왕성하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대오를 백배해나가야 합니다.

동포상공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주력군입니다.

상공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는 동포상공인들의 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적실한 대책을 따라세우며 세계경제발전동향과 추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전문화수준을 높여 동포들의 상공업활동을 실리가 나게 방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무어주신 젊은 상공인들과 학부형세대들을 망라하고있는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주력후비대입니다.

청년상공회는 결성초기에 들었던 구호 《유족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꽃봉오리들의 미래를 위하여》를 청상회운동의 기본종자, 영원한 주제로 들고나가야 합니다.

청년상공회에서는 새 교복을 펼쳐입고 우리 학교로 가는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량한 모습에 총련의 미래가 비친다는것을 분분초초 명심하고 민족교육지원사업을 계속 선두에서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로 향한 영예로운 진군길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기치는 마땅히 동포청년들이 들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에서는 각급 조직들의 자립성과 독자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동포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동포사회를 젊음이 약동하는 청년관, 새세대관으로 들뜨게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서도 일본대학들에 다니는 동포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꾸준하게 벌려 그들이 조선의 녀, 민족의 얼을 지니고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은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는 총련의 가장 큰 군중단체입니다.

자녀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고 민족적자존심을 키워주는 첫 스승도 동포녀성들이며 동포자녀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 민족교육의 화원을 제일 품을 들어 가꾸는 원예사도 다름아닌 재일조선녀성들입니다.

녀성동맹 각급 조직들에서는 우리 학교를 거점으로 모든 애국애족활동을 조직전개해나가며

재일동포사회를 민족성이 강하고 화기가 넘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드는데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녀성동맹에서는 애국사업실천에서 단련육성된 젊은 동포녀성들을 적극 내세워 그들이 재일조선인민운동의 한쪽수레바퀴를 대를 이어 역세게 떠밀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지휘성원인 총련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스스로 걸머지고 애국의 길에 나선 직업적인 정치활동가들이며 우리 조국이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는 해외혁명동지들입니다.

우리 조국은 총련일군들에게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존엄과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있으며 모든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조국과 민족이 부여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뼈심을 들여 잘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고 하늘처럼 신성히 떠받들며 언제나 동포들속에서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해나가야 합니다.

늘 동포들속에서 있으면서 혈육들과 집안일을 의논하듯이 동포들과 무릎을 맞대고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방도를 찾으며 그들의 정신력을 발달하여 천사만사를 풀어나가는것을 습벽화하여야 합니다.

자기 관한 동포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그에 맞게 천가지, 만가지의 적중한 사업방법을 다 찾아 군중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을 무한히 존대하고 존경하여야 하며 동포군중을 거울로 삼아 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동포들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동포들의 행복한 생활과 안위를 위해 혼신을 다 바치는 성실하고 근면한 심부름군이 되어야 합니다.

동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 일군들과 동포들사이에 오고가는 따뜻한 정이 곧 총련의 힘입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의 요구가 백가지, 천가지 이라고 해도 어느 하나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그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동포들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되어주고 생활상고충을 겪는 동포들에게는 자별한 형제, 자매가 되어주며 동포들이 더위하면 산들바람이 되어주고 추위하면 우등불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어려운 동포일수록 더 원심을 쓰고 이그리진 동포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생활상고충과 마음속옹어리를 풀어주어야 하며 높은 인격과 넓은 도량으로 동포모두를 품어안아 애국애족의 한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은 우리 동포들의 모든 꿈과 리상을 다 이루어주고싶어하는 조국의 간절한 당부를 정히 새겨안고 동포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 힘차게 매진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각별한 정을 기울여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의 노래가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할것입니다.

나는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총련부흥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귀중한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더욱 용기백배 정신해 나아가리라하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가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위대한 전환의 리정표로 빛나게 장식되기를 바랍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받아안고 크나큰 격동과 신심에 넘쳐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력적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받아안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들은 커다란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위화한 설계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자신들의 사명과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추동해나가겠습니다.》

**리수성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권리복지국 부국장**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받아안으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높은 명마루를 향한 설계도를 명심해 주신데 대하여 감동과 경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주권익의 옹호자, 대변자인 총련의 권리복지사업을 위해 동포들의 자주권과 생활권, 발전권을 옹호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항상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뜨거운 정을 안고 동포생활에 밀착한 봉사복지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기 위한 사색과 연구를 깊이 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분투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고덕우 총련도교도본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력적 서한을 자자구구 되새길수록 우리 총련동포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믿음을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복리

를 위해 나라의 억만재부를 다 기울여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진정이라고, 모든 총련일군들이 우리 동포들의 모든 꿈과 리상을 다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조국의 간절한 당부를 정히 새겨안고 동포들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새로운 승리를 열어나가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그이의 대해같은 사랑이 담겨져있었습니다. 우리는 총련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총련도교도본부관한 동포들의 행복한 생활과 안위를 위해 혼신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한동성 조선대학교 교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사업을 각별히 중시하시며 지난해 4월 대학창

립 65돐에 즈음하여 사랑의 축전을 보내주신데 이어 또 다시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대학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니 뉘그러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서한에서 조선대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세워주시고 장중보육처럼 귀중히 여기시던 민주주의적민주교육의 최고전당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해외교포대학이라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사랑, 이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총련의 미래를 떠들고나갈 믿음직한 핵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 재일조선인운동의 백년대계를 역적같이 담보해나가겠습니다.》

###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겠다

**강주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방역대전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분망

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녀성동맹과 동포녀성들이 직접 맡아안아야 할 사업입니다. 민족을 투쟁짓는 징표인 조선민족의 혈통과 언어를 고수하는 문제는 우리 녀성들에게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녀성동맹은 모든 동포녀성들이 력사와 민족애에 지닌 성스러운 사랑감을 자각하고 조선사람의 혈통을 깨끗이 이어가도록 하며 자식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오직 우리 말만 하는것이 가정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국기가 없어도 조선사람임을 알게 하는 조선치마저고리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이 동포사회의 풍조로, 관례가 되도록 하며 가정에서 민족음식을 장려하고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적극 살려나도록 함으로써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민족전통이 굳건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윤래길 도교조선총교급학교 교장

《저희들은 우리 학교가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민족성고수를 위한 사업에서 자기합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가슴이 저려

습니다. 민족성고수에서 우리 학교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 다. 저는 우리 교정에서 조선의 말과 글이 더욱 광량히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인사를 해도

### 통일애국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겠다

**김상일 총련 교도본부부위원장**  
《재일조선인운동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귀중한 교시를 주시어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이번 전체대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주시어 총련이 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조국통일을 위해 이바지하는 해외동포조직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해나갈데 대한 기대와 믿음, 은혜로운 사랑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불렀고 우리의것을 우선시하며 녀학생들이 언제나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이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 주체적애국애국운동의 백과전서적인 총서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최악의 난국을 뚫고 방역대전의 승리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총련군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력적서한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위화한 앞길을 밝힌 주체적애국애국운동의 백과전서적인 총서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력적서한을 받아안은 저희들의 가슴은 크나큰 신심과 락판에 넘쳐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력적 서한을 보내주시어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는 그이께서

밝혀주신 위화한 설계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력사적인 일심단결의 대회, 계승과 혁신의 대회, 력사적인 대회로 빛나게 장식되게 되었습니다.》

###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현시기 총련이 나아갈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력적 서한은 총련의 애국애국운동을 동포제일주의로 확고히 전 환하고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을 유일무이한 원동력으로 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총서이며 승리의 기치입니다. 우리모두는 강력적서한에 담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 《모든 해외동포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뜻깊은 서한》

—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의 반향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에 보내주신 강력적 서한은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혈통이 민족을 투쟁짓는 첫째 표징이라면 언어는 민족을 투쟁짓는 둘째 표징이라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우리 말을 하는 시간이 곧 애국으로 사는 시간이라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제 아들이 조선말을 잘하도록 교양하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다. 이제부터라도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가슴에 새기고 몸은 비록 이역에 살지만 우리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고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며 민족성을 지켜나가도록 아들교양을 잘하여 조선민족의 넘과 정신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재중동포 리영숙**  
《민족성은 조국인민들도 강해야 하지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일수록 더 강해야 한다. 정말이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명언입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제 아들부터 조선말을 하면서 민족의 피줄을 굳건히 이어 나가도록 교양하며 주변에서 사는 동포들도 조국에 대하여 옹호하고 조국인민들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재로씨야동포 우명수**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을 위하여 한가지씩만 좋은 일을 하여도 조국의 부강변영이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재일동포들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동포들이 언제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

《외국에서 살다나니 자연히 그 나라말을 할 때가 많고 또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조선민족임을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자자구구 새기면서 애국이란 다른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에서부터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고 우리 말을 하는것임을 다시금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머느리와 손녀들에게 조선치마저고리부터 해입힐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선사람의 넘과 정신을 안고 조국의 부강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중동포 변수정**  
《이역땅에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는데 애국의 참모습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받고보니 애국이라는것이 조국에 큰 기여를 해서만이 아니라 민족의 넘을 지켜가는데도 있다는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들뿐 아니라 손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넘을 심어주는 일을 제 일가는 일로 여기고 이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해나가 결심합니다.》  
**재중동포 한나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은 총련의 동포들뿐 아니라 해외에 사는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조국의 자주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이것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하여야 할 애국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에서 더 많이 배우고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 조국의 부강변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재중동포 김영일**

### 력사적인 서한에 무한히 고무되여

《세계대들을 비롯한 동포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과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가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의 노래가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하겠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조국이 가장 어려울 때도 재일동포들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해마다 보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 통일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고귀한 지침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 지상의 과업이고 제일 중대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절세의 애국자들이 수렁으로 모시고있는가를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받아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이 고귀한 이념의 리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조강대강행군길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라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오 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해외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해외동포들을 조국인민들과 똑같이 격정하시며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시고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재중동포 심용수**

### 송고한 동포애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포들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송고한 사랑으로 받아안으시고 동포들의 마음에 그들이 질세라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또 한번의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우리 민족의 구세주이십니다.》  
**재일동포 문숙경**

###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살겠다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끝없는 로고와 불같은 헌신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배풀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입니 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해외동포들을 조국인민들과 똑같이 격정하시며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시고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재중동포 심용수**

저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환풍에 안아 키워주신 우리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동포애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벌려나가겠습니다.》  
**재로씨야동포 김남수**

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이것은 비단 총련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 동포들이 이역땅에서 조국통일과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해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환히 밝혀주는 고귀한 지침입니다.》  
**재로씨야동포 김남수**



#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인생은 지켜주고 품어주는 은혜로운 품이 있을 때라야 그 삶에 존엄과 영광이 깃들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에 안겨 한 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영광으로 빛을 뿌리는 그들의 사후가 이를 잘 말하여준다.

공화국의 지명한 정치군사활동가였던 현철해 전 조선인민군 원수의 한생도 그러했다.

자신의 옷자락으로 막아 온 나라 인민에게 행복만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전설, 얼마나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가 경애하는 원수님 결코 걸으신 이 위대한 의리의 길에 새겨져있던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전사로 한생을 빛낸 인민을 일깨워주시고, 두손으로 유해에 흠을 없으시던 잊지 못할 그날의 영결식과 뜻밖에 세상을 떠난 당중앙위원회 한 책임일꾼의 영결식을 찾아가 보았을 때, 그 영결식에 참여했던 오열을 더하며 울음으로 그의 시신을 감싸고 손을 얹고계셨던 가슴뜨거운 화복, 또 오늘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킨 현철해 전 조선인민군 원수와 영결식...

다. 그리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앞으로 일을 많이 할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빨리 간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고 사람도 물고기대롱을 안아오기 위하여 애쓰던 평범한 일꾼이었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하시며 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또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고 사람들도 평범한 광부이고 농장원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걸음을 잘못 멘것으로 하여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날만 하였던 사람들도 한몸에 안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었다.

이렇듯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을 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가장 값높고 빛나는 삶을 누리고있다.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의 역사는 동지애로 시작되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전진하여온 위대한 동지애의 역사, 불같은 인민사랑의 역사이다.

바로 이 동지애의 힘으로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초유의 격난을 뚫고 헤치며 조국해방의 역사, 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고 새 조국건설도 준엄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도 사회주의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해올수 있었다.

《너는 김력, 나는 성주》, 《너는 허담, 충실한 담의 전사

나는 정일》 력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 친필은 조선혁명이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왔다. 그날을 오늘도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력사,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속되고있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한번 정을 주고 믿음준 사람들 대해서는 끝까지 아끼고 믿어주며 내세워주고 보살펴준다고, 그래서 그에게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혁명동지, 전우들이 많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사랑,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땅에 인민사랑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시고 동지애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나가 고계신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이 땅에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력사, 혁명적동지애의 력사가 도도히 흐르고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은 절세위인의 진함없는 인민사랑, 끝없는 동지애에 의해 빛나게 완성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 하늘같은 그 큰덕을 길이 권해드립니다

저는 30여년전 공화국으로 의거 입북하여 재북평화통일축전협회의 회원으로 있는 정구진(77살)입니다.

국가비상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된것과 관련하여 다들 집에서 머물고있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몸상태가 좋지 않아 나는 그만에야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족들도 없게 되고 보살펴준다고, 그래서 그에게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혁명동지, 전우들이 많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런데 TV를 보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됐던 소식이 전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 의지박약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극히 애정적이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또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고 사람들도 평범한 광부이고 농장원들이었다.

그러던중 어느날 밤 10시에 상차별을 단 조선인민군 군의와 약국의 책임자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여러가지 귀한 약과 후방물자들을 주고 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다음날 밤에도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총비서동지께서 사회적으로 공로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잘 보강해줄때 대하여 말씀하시었다고 하면서 이 약은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약이니 이 약을 받으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바랍니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치솟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데 나와 우리 가족이 뭐라고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저와 우리 온 가족은 너무도 감격하여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해서 분분초조 헌신으로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은 격정적으로 설레었습니다. 창가에서 불같은 거리를 내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순간이나마 동료였던 자신을 위우했으며 신심을 가지고 치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됐던 소식이 전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부족, 의지박약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극히 애정적이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또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고 사람들도 평범한 광부이고 농장원들이었다.

다보내 나의 눈에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당과 국가의 사랑과 배려를 받고 또 받아온 지난날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두 제도에서 살아본 체험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되는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곳 북에는 친척이란 없고 제 인생도 이제는 고목인데 이렇게 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병치료를 해주시니 그 하늘같은 은덕을 눈에 흉이 들어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소리가 높게 웨치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오늘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더욱 찬란히 빛내주시는 사회주의 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세상에서 으뜸중의 으뜸이라고. 말로 백마디, 천마디 한들 뭐하겠습니까. 저는 자식들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오늘의 은혜를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일을 잘해 꼭 보답해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당부할 고 또 했습니니다. 우리 8천만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고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원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것날까지 로망일장하여 그이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조국통일상수상자, 교수, 박사 정구진



### 시 초

# 인민은 원수님만 믿고살나라

## 사랑의 끝은 어디입니까

리창식

사랑은 모든것을 이긴다 했거늘 이 나라의 천만자식 품으신 원수님께서는

인민은 벌써 보았다 방역전쟁 그 첫날에 승리, 방역대승의 그날을 보았다!

힘겨울세라 아파할세라 찾아가고 찾아오는 그 솔한 사람들과 인연없는 사람이 땅에 있던가

구원을 바래도 잡아줄 손길 없는 처량한 인생들 막돌처럼 버림받을 때 한식술, 친형제로 정을 나누는 내 나라

못산다고 그 품을 떠나신 순간도 못산다고 마음속진정 리쳐 목매여 불러온 우리 인민 가슴에 뿜는 오늘의 이 격정 무슨 말로 대신해야 할니까

어려운 세대에 보내달라시며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신 원수님

아버이 오신 길 누군들 상상조차 했으랴 생각만 해도 졸지에 가슴 졸아들고 마음 설책해지는 곳에 원수님 오실줄 전염병위험이 도사린 약국을 찾아 아, 우리의 아버지 발걸 달려 오실 줄은

결과 정을 주며 운명을 함께 하고 싶으신 그 간절함이 못견디게 사무치신 그이

한밤에도 새벽에도 그칠줄 몰랐던 정을 담아 울리던 문두드리는 소리 이 나라 어느 가정에서나 아픈은 덜고 정을 더해주는 식솔이 늘고 형제가 늘어나지 않았 더나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후더운 미덕의 세계 인민을 위해 마음고생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루빨리 병을 가서 그 근심 덜어드리 작고 자기를 바쳐 서로 위해주는 뜨거운 마음 들어

아침에도 저녁에도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나에게 온 나라 집집에 퍼져처럼 흘러든 뜨거운 정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이여

그 사랑 안고 방역전에 파견된 인민군 군의들의 약품들을 실은 차들이 온 나라 거리를 누빌 때 인민은 벌써 방역대전의 승리를 확인 했나니

오시면 오시면 안되건만 인민들 생각에 아픈 덜길 없으셨던 그이 정녕 오시지 않으면 안될 길이었던가 인민이여, 한분밖에 안계시는 아버지 우리 어찌나 이런 곳에 모시었던 말인가

그 간절함 아무리 사무치다 하신들 여기는 안된다고 들어서시면 안된다고 어찌 두팔벌려 막아드리지 못했더냐 가까이 다가서시는 그이와 멀어지려 한걸음 두걸음 뒤로 물러서야만 했던 것이 이 나라 인민의 도리의 전부 였더나

피라도 아깝없이 부어줄 인정 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칠 이 미덕엔 너와 나가 없었고 남이 따로 없었거니 인간에 대한 중요와 경멸로 짙은 싸늘한 그런 땅에서야 꿈조차 꾸라

우리는 무엇으로 강한가 원수님 사랑으로 덕과 정이 넘치는 사회주의대가정 그 불된 힘으로 강하다 오, 온 나라에 차넘치는 그 덕과 정으로 우리는 영원히 강대하리라

사랑하는 인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두고 당회의를 소집하시기는 그 몇번 자신의 안락까운 마음 리놓으시며 인민의 생명과 생활 미래를 끝까지 지켜내라고 열렬히 호소하시던 그밤 그 새벽은 정녕 몇시였더나

누가 말했더냐 자식에게 어머니는 하늘이라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도 끝이 있다지만 우리 원수님 천만고생과 바꾸어 온 나라 인민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끝은 어디입니까

꿈결에도 뵈고싶던 원수님 그이를 모시는 그지없는 행복이건만 심장이 얼어들고 가슴치는 충격에 기쁨보다 근심이 라들던 그 한초한초가 야속했구나 왜 그러도 더디게만 흘러 갔던지

사랑으로 한몸 불태우시는 아버지 인민위해 회생을 각오하신 그이 아니 고시야 그 누가 싯뜻 나설수 있으랴 원수님 오신 그 밤같이 있어 병마도 앓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웃음넘친 아침이 밝아 왔거니

병마에 쓰러진 쓸쓸한 운명들이 이 행성 어디선가 외로이 숨져갈 때 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내 나라

우리는 무엇으로 강한가 원수님 사랑으로 덕과 정이 넘치는 사회주의대가정 그 불된 힘으로 강하다 오, 온 나라에 차넘치는 그 덕과 정으로 우리는 영원히 강대하리라

## 인민은 보았다

리철준

누군들 당황하지 않을수 있었으랴 공포와 불안 눈물과 고통속에 세계를 몰아넣은 악성비루스 업종한 비상방역상황이 우리 사는 이 땅에 드리웠을 때

인민의 가슴에 자리잡은 배심든든 함이여

마음 같아선 불행을 겪는 인민들 한사람 한사람 집집을 다 찾고싶으신 그이 어렵고 힘겨운 자식들을 보듬어 안아

잊지 않으리라 그날의 밤길 아, 원수님 약국을 찾아오신 그 길은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려 오신 길 우리모두의 가슴에 꺼짐이 없을 생명의 불을 안고 오신 사랑의 길이 였으랴

순수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 자신께서 쓰셔야 할 그 약품마저 인민들에게 보내주시 원수님 하늘같은 이 나라 인민을 위해 가정도 건강도 다 잊으셨습니니다

은인중의 은인은 생을 구해준 은인 이거늘 최악의 국난 최악의 동란속에서 품만 같이 받아안은 원수님 은정 그 사랑이 인민을 살려낸 명약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역세인 힘입니다

시시각각 분분초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 우리의 미래가 위협당하던 그때 울려 퍼졌어라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응성이

우리에게 원수님 계신다!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오, 인민사수로 불리는 그이의 뜻 인민사랑으로 높된 그이의 숨결은 천만인민 가슴을 울린 신심이었고 역척같이 다져준 불사신의 의지였 거니

병마와의 싸움은 엄혹한 전쟁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모자라고 부족한것은 많건만 무엇이 있어 우리는 오늘의 시련 웃으며 맞받아 뚫고 헤치는것인가

발기를 끝내 사양하던 고마운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라 그 진정 피를 나눈 혈육이어서였던가를 무엇이 남아돌아 나눈 정이었던가를

두손으로야 어이 받아들수 있겠는가 가슴 해쳐 심장에 꺼안고싶다고 황남이 터치던 격동의 눈물 온 나라가 마음속에 그 약지함 부여 안고 끝없이 목매여 울었습니다

인민의 생명 그처럼 소중하시여 은정어린 불사약 보내주시 아, 고마우신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 품을 떠나 인민은 못살니다 인민은 원수님만 길이 믿고살니다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제로! 비상방역전의 명안들 사랑의 조치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원수님의 모습 뵈움은 순간 어머니 있으면 마음을 놓는 아가처럼

두렵지 않았어라 아버지의 불같은 사랑이 있어 인민을 지켜내시어 아버지의 그 헌신 있어 이 땅을 불행에 잠글수 없기에 이 땅의 행복을 앗을수 없기에

너적지 않은 식량을 성품 덜어내면서도 웃음 머금던 녀인들에게 물어보라 차려진 약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주려버

어제는 열집의 성이가 우리 집에 흘러 들고 오늘은 웃집의 정이 아래집을 울리는 그런 동네 그런 마을 없는 곳 어디 있고

그이엔 자신의 가정 따로 없었습니다 이 나라 인민이 다 그이의 살붙이였고 이 땅의 모든 가정엔





### 저리의 통일속망을 물어주시려고 (7)

역사적인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에도 미국의 비호밑에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려온 남조선당국은 1973년 6월 23일 북과 남의 《유엔동시가입》을 팔자로 하는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민족분열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려고 하였다.

반통일세력의 이러한 책동은 반만년 오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왔으며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가장 악랄한 배신이며 도적이였다.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이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미전부터 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음모책동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분쇄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무리

익혀오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62(1973)년 6월 23일 남조선 당국이 이른바 《특별성명》을 발표하지 불과 몇시간후에 진행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당시 체스코슬로벤스프 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 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조국통일5대방침을 새롭게 내외에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

##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북남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구체화한것으로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가 견지하여야 할 관한 예속에적립장을 뚜렷이 구현한것이였다.

이 방침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폭넓고 정확히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정당한 방침이며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시으로써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분열을 반대하고 통일을 원하며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추수하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게 하시였다.

조국통일5대방침이 제시됨으로써 남조선당국자의 반통일적인 이른바 《특별성명》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몇시간만에 풍지박산났으며 삼천리강토는 다시금 뜨거운 통일열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조국통일5대방침은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5대방침을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민족의 대강령》, 《영구

분렬의 위기를 막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준 등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방을 열어주고 그것을 승리로 종착시킬수 있는 위대한 강령》으로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미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언론들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도 《조선문제해결의 리상적이며 실현적인 해결의 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등으로 조국통일5대방침을 지지하였다.

진정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분별불유신과 보고가 있어 조국통일운동은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즐기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 위세와의 《공조》는 카멜의 길

최근 윤석열패들이 《한미의 빈틈 없는 공조》를 떠들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제세도에 적극 맞장구를 치고있는가 하면 《한미확장경제전략협의체》의 제가동, 미전략자산의 남조선전개, 《한》미합동군사연습의 확대 등을 떠들며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침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매국역적, 대결광들만이 저지룰수 있는 추악한 민족반역행위가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의 하나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군사적강점과 지배이다. 이것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 나라의 평화를 이룩할수 없다.

더우기 지금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전대시정책을 계속 추수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박수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미국이 핵동력항공모함전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개하고 남조선호전파들과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여놓고있는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고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윤석열패당은 《한》미합동군사연습개, 미전략자산의 남조선전개, 《한국형3축전략체계》구축 등에 대해 떠들며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은 북남사이에 대결과 불신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외세와의 공조는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이라는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대결공조, 전쟁공조, 반역공조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이 미국상전과 함께 반공화국대결과 북침기도를 그대로 반영한 그 무슨 《한미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는데 대해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핵전쟁선언》, 남조선이 지배와 예측의 울가미를 더욱 깊숙이 쓰게 만든 《공조선언》, 《현대판 을사5조약》, 《망국선언》으로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족의 지향과 념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외세와의 공조는 곧 수치스러운 자멸의 길이다.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날뛰다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남조선의 력대 독재 《정권》의 비참한 말로가 이를 잘 말해주었다.

윤석열패당이 저들스스로 선택한 침미사대와 외세굴종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날도 결코 멀지 않았다.

전영일



본사기자 강류성

##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애국적인 사상계몽운동의 시작과 새로운 투쟁단체들의 결성

4월인민봉기이후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참다운 삶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은 더욱 강화되었다.

4월인민봉기후 합법적활동을 시작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학생들을 《신진회》성원들을 비롯한 핵심적인 학생들은 학생운동을 새로운 계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이러한 속에 1960년 7월초부터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제자주정신으로 계몽시키며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을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신생활계몽운동》이 시

작되었다.

4월의 투쟁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인민들에 대한 계몽사업을 진행할것을 모든 대학들에 발기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신생활계몽대》를 두고 남조선의 134개 시, 군에 내려가 애국적계몽운동의 불을 지켰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의 이 운동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인천 등지에 있는 여러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어져 하나의 사회계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학생들은 어

름방학을 리용하여 농촌에까지 《신생활계몽운동》을 벌려 농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신생활계몽운동》은 인민들을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는 애국적인 사상계몽운동이었다.

투쟁단체와 조직들은 우리는 사업도 각계층속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4월인민봉기때 부상당한 서울의 학생들은 《4.19부상동지회》를 조직하였고 마산봉기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청년들은 《3.15의거부상동지회》를 꾸렸다. 남조선청년학

생들은 또한 진보적인 청년단체들인 《4월학생혁신연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주인민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였다.

녀성들의 새로운 투쟁조직으로서 《전국녀성단체합의회》도 결성되었고 대학들의 진보적교수들은 《한국교수협회》를 꾸렸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유가족을 묶어세운 《전국피학살자유족회》도 조직되었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남조선

실업자들은 《전국실업자연맹》을 비롯한 실업자단체들을 꾸렸다.

학계, 언론계에서도 권력에 아부굴종하며 진리를 등지는 무리들을 배격하고 시대의 요청과 대중의 지향에 따르면서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졌다. 문학과 예술계에서도 4.19투쟁정신을 이어 새 정치, 새 생활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본사기자 강류성



###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범죄성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자기의 침략무력을 주둔시킨 첫날부터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 목적에 무력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팀 스프리트》합동군사연습과 《을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드런》합동군사연습, 《련합전시중원연습》,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가한 북침전쟁연습들이였다.

이와 같은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은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신련합작전계획

5015》, 《한미공동국지도달대비계획》과 같은 북침전쟁계획에 의해 진행되었다.

남조선과 주변에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곤 하였다.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그 범죄적성격으로 하여 우리 겨레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

격을 받고있다.

그런데도 최근 윤석열패당은 미국과 2022년 하반기부터 지상실기동훈련을 배합한 《한》미련합군사연습을 벌려나가고있다.

윤석열패당이야말로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안녕을 해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국악단 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전하는 기념관

### —일본의 우토로에 평화기념관 개관—

재일동포들이 모여사는 교토부 우토로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에 대해 발전해나가는 지역주민들의 념원이 담긴 《우토로평화기념관》이 개관되었다.

4월 30일 준공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우토로지역출신인 동포가수가 《아리랑》을 부른 다음 관장의 인사가 있었다.

40여년간에 걸쳐 이 지역의 재일동포들과 친분을 맺

고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성원으로 동포들이 벌리는 권리호투쟁에 힘을 보태는 그는 처음으로 이곳에 오신분들도 많을텐데 여러분은 오늘 우토로를 만났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우토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를 발전해나가고자 호소하였다.

이어 총련 교토부 김상일 위원장과 여러 관계자들이 축사를 하였다.

김상일위원장은 력사의 땅

우토로에 평화기념관이 훌륭하게 일떠섰다고 하면서 동포제일주의정신으로 우토로문제의 해결과 평화기념관의 건설에 한몫 다한 총련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하였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계승하는 기념관이 우토로에 일떠선것은 한세기에 걸친 재일조선인사에서 특기할 일이다. 이 기념관이 재일동포들의 수난

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려나가는 동포력사유산으로서 후세대에게 올바른 력사관을 세우고 그들이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떳떳이 살아나기도록 하는 후대교양의 거점,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과의 민족문화교류의 귀중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총련은 우토로주민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귀중히 여기며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 재일조선인들의 참된 삶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우토로지역의 력사와 평화기념관건설의 로정이 그리했던것처럼 광범한 일본시민들과 힘을 합쳐 조선반도와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갈것이다.》고 하였다.

기념식에서는 남조선의 시민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보내온 영상편지소개, 기념관건설에 공헌한 개인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관계자들이 준공예도를 끊고 새 출발을 알리었다.

본사기자



## 통일을 불러 인생말년을 련공애국, 통일애국의 길에 (6)

공화국에 영주한 후 최덕신선생의 하루하루, 그것은 통일애국위업에 헌신한 나날이었다.

그는 공화국정부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통일방안들을 내놓을 때마다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곤 하였다. 해외동포들을 만나서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그리고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이야기해주었다.

특히 그는 《김정일 그의 한울림》(1989년), 《만고의 위인 김정일》(유교작, 1990년)과 같은 책을 써내 조국통일의 구성인 절세의 위인들의 위인상을 널리 소개하였다.

그가 고향의 나이에도 왕성한 정력에 넘쳐 통일애국성업에 전심할수 있는때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살라고 하시며 그의 건강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다심하신 은정을 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덕신선생의 내외가 공화국에 영주한 이후 그들이 안락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생활상의 모든 편의를 다 보장해주셨다.

그러시고도 명절이면 잊지 않고 갖가지 색다른 식료품들도 보내주시었다. 또한 새해를 맞을 때면 최덕신선생을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따로 내서 오찬도 베풀어주시며 그가 건강할 몸으로 통일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해주셨다.

주체77(1988)년 1월 2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해의 그 아침에도 최덕신선생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두고 념려하시면서 최동무가 병원에 자주 가는것을 미안해하는데 젊은 사람도 아닌 늙은 사람이 왜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고, 최동무도 이제는 나이가 74살인데 건강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나는 최덕신위원장과 적어도 10년동안은 같이 일하고 하였다. 그도 나와 같이 10년동안 더 일할 결심을 가지고있을것이다. ...

그러시고는 아까운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의료인원들에게 어떻게 하나 아들이 올 때까지 최덕신위원장의 생명을 지탱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시며 몸소 화환도 보내주시고 고인의 령구를 찾아주시였다.

주체78(1989)년 11월 18일, 최덕신선생의 령구를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가족들에게 최덕신위원장이 내 사랑을 다 받지 못하고 갔다, 그가 10년간은 나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하였다. 아까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못내 애석해하시였다.

또한 유가족들이 최덕신선생의 뒤를 이어 일을 잘해야 한다고, 우리는 조국통일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장례를 잘 치르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묘지는 애국렬사릉에 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돌이켜보면 참된 애국의 길을 찾지 못했것으로 하여 남조선과 해외에서 방황하던 최덕신선생이 공화국에 삶의 뜻을 내리고 살아온 기간은 불과 3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조국의 품, 민족의 은인들의 품에 안겼기에 김일성훈장수훈자, 조국통일상수상자, 애국지사로 값높은 삶의 흔적을 남겼수 있었다. 그리고 부친 최동우, 장인 류동열, 차이모 류영준과 나란히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었다. 저마음 애국을 한다며 각같은 인생행로를 걸은 일가족이 함께 영생의 높은 언덕에 오를수 있게 된것이다.

최덕신선생에게 배풀어지던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의 부인 류미영선생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남편이 이루지 못한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위원, 친도교청우대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지니고 통일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있었다.

하기에 류미영선생은 분열된 민족의 상징인듯 남조선과 해외에 널리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국에는 높고낮음이나 크고작음이 있을수 없고 자기마한 애국심도 금욕같이 소중한것이다. 민족단결은 그 작은 애국이 곧 하나로 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내가 공화국에 영주한 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결론이다.

북과 남, 해외에서 사는 우리모두는 손을 굳게 잡고 통일애국위업을 실현하는 길에 같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지.》

본사기자



본사기자